

## 사우회 송년모임, 12월 12일(목) 오후 5시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웨딩시티 8층 A홀  
3번 출구에서 지하로 곧장 연결



사우회 송년모임 장소가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에 위치한 테크노마트 웨딩시티 8층 A홀로 확정됐다.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가면 지하에서 바로 연결된다. 사무처는 사

전 답사를 통해 뷔페로 제공되는 식사가 깔끔하고, 공간도 넉넉하며, 특히 접근이 편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제한된 예산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이곳을 선택했다. 사전에 참석 여부를 타진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모임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기를 사무처는 기대하고 있다. 회비는 만원이며 회원수첩과 다

이어리,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 발전기금을 내주신 분들(9월 20일 이후)

- |                                |                          |                 |
|--------------------------------|--------------------------|-----------------|
| ▶ 이 증(보도) 200만원                | ▶ 변웅전(ANN) 110만원         | ▶ 하영석(보도) 100만원 |
| ▶ 골프동호회(회장 김용빈) 30만원           | ▶ 고장석(편제), 박민정(ANN) 30만원 | ▶ 김해원(편제) 30만원  |
| ▶ 박순호(관리) 30만원                 | ▶ 박근학(관리) 50만원           | ▶ 강철용(편제) 20만원  |
| ▶ 박용찬(미주) 200불                 | ▶ 안영제(기술) 20만원           | ▶ 이해걸(업무) 20만원  |
| ▶ 김영균(관리) 20만원                 | ▶ 정종국(관리) 20만원           | ▶ 김애희(관리) 20만원  |
| ▶ 박준하(관리) 20만원                 | ▶ 익 명(관리) 20만원           | ▶ 이상욱(관리) 10만원  |
| ▶ 이경재(관리) 10만원                 | ▶ 이상욱(관리) 10만원           | ▶ 김종순(기술) 10만원  |
| ▶ 최낙호(관리) 10만원                 | ▶ 정 진(보도) 10만원           | ▶ 김종현(기술) 10만원  |
| ▶ 김성기(기술) 10만원                 | ▶ 홍학표(업무) 10만원           | ▶ 이운하(편제) 5만원   |
| ▶ 이중구(관리) 10만원                 | ▶ 방운식(관리) 10만원           |                 |
| ▶ 조록회(여자ANN OB모임 회장 임국희) 100만원 |                          |                 |



## 2019년도 제4차 이사회 열려

올해 4차 이사회가 11월 14일 오전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요 의안은 송년모임 건, 창립30주년 기념사업 건, 회무규정 개정 건 등으로 한 시간 반 동안 진지한 논의

와 의결이 이뤄졌다.

차인태 사우회장은 발전기금을 주신 회원들에 대해 거듭 감사를 표하고, 임원들이 앞장 서서 사우회를 이끌어 가는데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조록회(여자ANN OB모임 회장 임국희)

###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 2019년도 하반기 동호회 행사 종료

### 골프대회

사우회 가을 첫 행사인 골프대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을 하늘이 청명한 9월 17일(화) 춘천 오너스골프장에서 열렸다. 회원 25명과 비회원 1명으로 구성된 7팀이 참여해서 각축을 벌였다.

사무처에서는 기념 타월과 시상품을 제공했으며, 상임부회장이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은 볼빅 컬러볼 1 piece씩을 참석 인원 모두에게 전달했다.

\*우승: 이용구(업무)

\*메달리스트: 이상진(보도)

\*준우승: 전춘옥(관리)

\*다과상: 문기영(관리)

\*장려상: 차종식(기술)

\*행운상: 안계홍(기술),  
황진욱(편제)



### 낚시대회

낚시대회는 9월 27일(금) 강화군 선두포 수로(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845)에서 14명의 조사들이 참여해 올 시즌 낚시로 치러졌다. 맑은 날씨에 햇볕도 나지 않은 쾌적한 분위기였지만, 전체적인 조황은 썩 좋지 않아 월척을 노리던 조사들의 실망이 컸다.

송인의(관리) 회원이 25cm 붕어를 낚아 1등을 차지했고 22.5cm 붕어를 낚은 김세중(관리) 회원이 2등, 21.8cm 붕어를 낚은 김휴선(보도) 회원이 3등, 안병태(관리) 회원은 23.5cm 잉어를 낚아 행운상을 차지했다. 차인태 회장과 사무처에서는 기념품과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했으며, 흥국화재에서 올해도 중식을 제공했다.



### 등산대회

10월 23일(수) 오전 북한산 둘레길 2구간과 1구간 순례길에서 열린 등산대회는 57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우이동 경전철역까지 6Km를 걸었다. 차인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심히 걸어서 건강도 지키고 젊음도 유지하시라"고 격려했으며, "발전기금을 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연말 송년모임에 꼭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다소 흐린 날씨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두 시간 동안의 등산을 마무리 한 회원들은 거북이네집에서 푸짐한 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눴다. 사무처에서는 타월과 참가 기념품을 회원들께 전달했다.



### 바둑대회

10월 30일(수) 10시 사우회 회의실과 경향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린 바둑대회에는 23명의 기사들이 참가해 반상의 다투를 벌였다. 오랜만에 사우회를 찾아 주신 임성기 회원을 비롯한 5명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 대국은 오후 4시를 넘겨 끝났다.

A,B조로 나눠 시행된 대국에서 A조 우승은 한박무(보도)회원, 준우승은 김은식(업무)회원이 차지했고 B조 우승은 박종규(기술)회원, 준우승은 이한익(기술)회원이 차지했다. 사무처에서는 우승 상품 외에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간식과 식사를 제공했다.



### 김승월 칼럼



김 승 월(편제)  
편집위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요즘 들어서 소리 지르듯 말하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주변 소음이 커져서 그런가. 생각이 나뉘고 대립하는 상황이 흔해져서일까.

웃으면서 천천히 말하면 얼마나 좋을 까만, 사납게 말하는 사람 참 많다. 말투도 거칠다.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을 퍼붓는다. 나 역시 그런 인상 주었구나 싶어 쓴웃음이 나왔다.

큰 음악 소리 때문에, 매장에서 뛰쳐나온 적이 있다. 7년 전,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어느 쇼핑센터에 단체로 갔었다. 매장에 신나는 음악이 쿵쿵 울려 퍼졌다. 현지 사람들은 익숙한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힘들었다. 귀가 아팠다. 일행을 따라다니며, 음악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장소에 피해 있었다. 결국 견디다 못해 매장

에서 나와 버렸다.

공항에서 하는 안내 방송 소리 크기를 유심히 들은 적이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나긋나긋하게 말한다. 우리 보다 경제적으로 처진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큰 소리 안내 방송을 듣다 보면 신경이 곤두선다.

조용하게 알려도 될 터인데 굳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을까.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4,50년 전에는 음향기기 광고할 때 꼭 출력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좋은 제품으로 여겼을 게다. 요즘에는 큰소리를 그럴듯하게 여기는 취향은 사라진 듯하다. 고급 백화점에서 배경 음악이나 안내방송이 크게 들리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목소리 크기도 비슷하다.

1960년대 여성해방운동 이후 미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남성들 소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함께 일하는 남성 중에서 소리가 낮은 사람

들이 돈도 잘 벌고, 아이를 더 많이 기르고, 지위가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큰 소리 낼 일이 적을 게다. 아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반대로 거친 노동하는 분들은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누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까 봐 큰소리 내는지도 모르겠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지만, 높은 사람은 대체로 목소리 크게 내지 않는다.

브랜드는 색과 글자 크기나 형태로 디자인된다. 목소리도 여러 요소가 섞여서 목소리 주인공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치료사 웬디 르보른Wendy LeBorgn박사는 '목소리 브랜드'라는 주제의 TED 강의에서 그리 말했다. 목소리의 브랜드 요소로는 목소리의 '크기, 억양, 빠르기, 높낮이, 소리의 질'을 꼽았다.

예를 들어 소리가 크면 공격적이고, 소리가 작으면 수줍고 불확실한 성격으로 인상 지어진다. 억양이 단조로우면 지루하지만, 심하게

바뀌면 지적知的이지 않게 들린다. 소리가 높으면 경박스럽고, 낮으면 권위가 있어 보인다.

말투도 일종의 목소리 브랜드다. 말투에는 직업의 특성이 나타난다. 공무원 말투, 군인 말투, 신부님 말투, 선생님 말투. 저마다 다 다르다. 말하는 사람 기질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기도 한다.

말하는 대상과 장소에 따라 말투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내게 말하는 말투가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 아닐까. 지혜는 의견에서 드러나고 교양은 말투에서 드러난다(지혜서 4:24).

말투는 소통에도 영향 준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보다 말투나 말하는 태도에 더 집중하기도 한다. 말투보다는 말에 담긴 마음이나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말투만으로 남을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말투 때문에 내 마음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 말투



경·조사

■ 구순 ■

이덕선(업무) 30.12.13

■ 팔순 ■

전정익(관리) 40.11.14 김성호(편제) 40.11.16 이화옥(업무) 40.11.17  
강 건(춘천) 40.11.23 이정일(미주) 40.11.27 신승훈(업무) 40.12.1  
마동익(관리) 40.12.21 박수효(기술) 40.12.22 유규현(기술) 40.12.28  
임재룡(기술) 40.12.30

■ 고희 ■

김창수(기술) 50.11.18 박유명(관리) 50.12.16 김을자(관리) 50.12.27

■ 회갑 ■

김갑순(관리) 59.12.29 권영만(관리) 59.12.27 김금봉(관리) 59.12.30

■ 결혼 ■

윤 진(기술) 아들 10.5 노승화(편제) 아들 10.6 김재천(관리) 딸 10.9

■ 부고 ■

윤문식(관리) 모친상 10.3 엄기영(보도) 장모상 10.5  
김재욱(관리) 부인상 10.10 고장석(편제) 부친상 10.11  
박민정(ANN) 시부상 10.11 하영석(보도) 장모상 10.25  
방운식(관리) 장인상 11.4 임무혁(관리) 장인상 11.7  
오명환(편제) 모친상 11.8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오수해(보도) 9.30 김기연(ANN) 11.4

■ 연회비 ■

홍학표('19) 연구철('20) 조성식('19) 권오룡('19) 김창제('17~'19)  
박문식('19, 5천원 미납) 이해걸('21~'24) 신낙균('18~'19) 김재욱('17~  
'19) 장영준('18~'19) 양경운('18~'19) 이종구('18~'19)

■ 평생회비 ■

김기연(ANN)

번호 / 주소 변경

기술 : 이석희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9

관리 : 박연식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12번길 5  
이경재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4,

## 회비와 발전기금 계좌 안내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  
들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  
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  
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  
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  
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  
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  
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수홍(관리, 사우회 고문)**  
9월 13일 별세. 향년 90세.  
MBC 창설요원으로 입사해  
상무이사를 역임하고 1969  
년 퇴사.



**권오룡(업무)**  
9월 22일 별세. 향년 84세.  
영업국장, 영업이사를 거쳐  
대전MBC 사장 역임.



**이상수(관리)**  
10월 19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78세, 1974년 입사. 시  
설운본부 부장대우로 근무  
하다 1998년 퇴사.

## 모두가 꿈꾸는 내일의 자동차를 향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공조(HVAC) 시스템 및 전기차 전장 부품 공급 전문기업



Control Head  
(HVAC Controller)

Clutch Coil

HVAC Actuator

PTC Heater  
(Electrical Heater)

세계 초일류  
자동차 부품회사-우리산업당  
Global leading company with the best technology in the automotive domain,  
control components and electric parts.

도전과 개척의 30년,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 100년  
친환경 글로벌 기업, 함께 도약하는 우리



## 회/원/동/정



박용찬(미주), 김정수(미주), 김기연(뉴질랜드)

11월 1일 오전 해외 거주 회원 세 분이 사우회를 찾았다.

워싱턴미주방송 박용찬 대표, 사우회 미주지회 김정수 회장, 뉴질랜드 가톨릭한인방송 김기연 대표 등은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참석차 모국을 찾은 김에 사우회를 방문하고 회비 및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하는 박용찬 회원



## 김명수(편제)

10월 8일 차재영 선배님의 9순을 맞아 '축하 만찬'을 주재했다. 대학로에 있는 '낙산가든'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선후배들이 참석했다. 김 회원이 식사비 일체를 부담했으며, 차인태 사우회장도 금일봉을 전달하며 9순을 축하해드렸다.



## 송세원(업무)

10월 2일~7일까지 인사동 동일빌딩 2층에서 두 번째 자연주의 유화 개인전을 가졌다. 연꽃, 도봉산 바위, 노송의 웅장한 자태 등 29점을 선보였다. 미술을 전공하고 CM제작부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했던 송 회원은 퇴직 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현재 8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정수열(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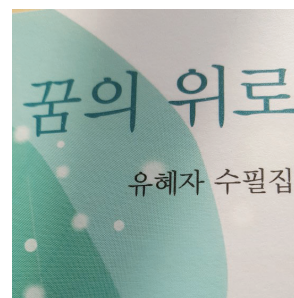
10월 29일 경기방송 대표이사 사장 겸 편성제작부문 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동안 극동대학교 교수 겸 경기방송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과, MBC에서 갖고 닦은 기량과 경험으로 '새롭고 활기 찬 콘텐츠 제작에 매진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 유혜자(편제)

10월 26일 수필집 『꿈의 위로』를 출간했다. 2018년 문예종합지 "시선"에 '올해의 최고 작

품상' 수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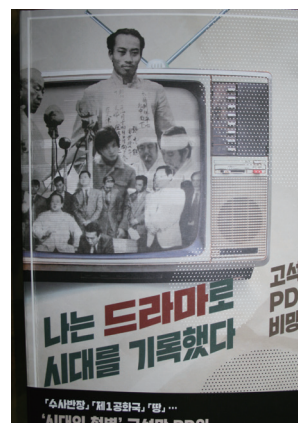


출판의 수혜를 얻었는데 이번 수필집이 그 결과물이다. 유혜자는 현재 격월간 『그린에세이』 편집인이다.



## 고석만(편제)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책을 출간했다. "나는 드라마로 시대를 기록했다"라는 제목의 책자에는 고 회원이 연출했던 수많은 드라마 제작에 얹힌 이야기와, 꿈을 키우던 어린 시절 얘기, EBS 등 공조직의 수장으로서 겪었던 일화 등이 담겨있다.



## 아름다운 만남, 특별한 저녁



## 김영철(편제)

지난 9월 어느 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마신 술의 절반은 이 분과 함께 했다고 항상 얘기하는 김명수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MBC예능PD 1호이며, 실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후배 예능PD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차재영 선배님께서 9순을 맞으셔서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조출하게 마련하려고 하니 참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나는 흔쾌히 "참석하겠습니다"고 대답한 뒤 "누구누구 참석하는데요?"라고 물었다. "차 선배님의 셋

째 따님과 외손주 둘, 진필호, 장두원, 김해원, 심재영, 구종회, 최선규 선배님들과 후배로는 방성근과 원만식 등"이라는 답변에 '어,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해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 잠시 뜨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진필호 선배님은 내가 입사하여 편성부에서 1년 반 가량 근무하다가 제작2부로 갔을 때 차재영 선배님과 함께 제작위원으로 계셨는데, 당시 20대였던 내게는 아버지 연배(당시 49세)여서 몹시 어렵게 느껴지던 분이셨고, 장두원 선배님은 직속 상사인 제작2부장으로서, 신참들에게는 하늘 같이 생각되는 육창웅, 심상수, 김행신, 이재휘, 최선규, 김명수, 신승호, 황효선, 심우승 선배들에게

"야,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고, 김해원 선배님은 영화부장, 심재영 선배님은

미술부장으로 MBC 전성시대에 큰 획을 그은 분들이셨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종회, 최선규 선배님들은 가까이 모시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일도 함께 했던 관계라서 만나면 즐거운 추억들을 얘기할 수 있었고, 방성근과 원만식은 자주 만나는 친한 후배들이라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약속된 장소 '낙산가든'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선배님들을 뵈고 보니 물론 반가운 마음이 훨씬 컸지만, 한편으로는 그 혈기왕성하고 당당했던 옛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언제 70대 중후반에서 80대 후반의 '노인'이 되셨나 싶어 내내 마음이 찢혔다.

그 누구라도 '세월 앞에 장사(壯士)가 없고 흐르는 세월은 비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숙연함과 아쉬움이 컸던 10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9



순을 맞으신 노 선배님을 위한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 비용을 전액 혼자 부담하신 '예나 이제나 성품이 넉넉하신' 김명수 선배님에 대한 고마움이다.

김 선배 또한 적지 않은 연세에 그런 일을 선택 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 사무처 리포트

## 수플레를 잘 만드는 집 『보드레』



이 석 일(사무처장)

“우리 부부 나  
이 합이 145.  
100세 시대에  
삶이 무료할 것  
같아 주변 지인  
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은평  
한옥마을에 조  
그마한 카페,  
갤러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어느 날 카톡으로 날아온 문자다. 그로부터 6개월. ‘무료한 삶이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찾은 곳은 신낙균(편제)회원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 ‘보드레’. 은평구 진관사津寬寺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한 은평한옥마을, 그중 왼쪽 첫 번째 집이다. 한옥 전문가가 지은 집에 인테리어와 식탁 등 가구 일체는 미술대학을 나온 신 회원이 직접 고르거나 만든 것들이다. 3층 건물의 지하는 화실 겸 갤러리, 1층은 카페, 2층은 살림집으로, 갤러리는 아직 준비가 덜 끝나서 오픈은 미정이다.

“아유, 무료할 틈이 어디 있어? 두 노인네가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괜히 시작했나 싶어”

멋진 맥고모자에 상하가 붙은 바지를 차려 입은 신 회원의 모습은 영낙없는 고급 카페의老웨이터.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인은 관록이 넘치는 셰프 겸 바리스타 모습이다.

“뭇보다 제 때 식사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야. 6개월 동안 체중이 4~5키로나 줄었다니까”

그리고 보니 부부의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묻어난다. 사실 서비



스업이란 게 나이 들어 하기엔 다소 무리한 직업이다. 더구나 젊은 시절 비행기 승무원으로 세계를 누비던 부인은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리스타 자격을 비롯해 몇 가지 필요한 자격을 일찌감치 갖춘 반면, 왕년에 MBC미술부에서 날리던 솜씨로 지금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인들과 어울려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살고 있는 남편의 습성으로 카페 써비스(?)를 제대로 하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하다.

“이 동네에 카페가 여섯 개야. 뭔가 특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구.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수플레야. 수플레가 뭔지는 알지?”

수플레란 ‘수플레 팬케익’의 줄임말. 수플레가 프랑스어로 ‘부풀다’



는 뜻이니 ‘부풀린 팬케익’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음식으로 유명세를 탄 집이 서울 시내와 지방에 몇 군데 있다.

“맛있기로 소문 난 집은 다 가서 먹어 봤어. 어떤 집은 한참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먹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

만드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 끼만에 많은 주문은 받지 못한다. 만드는 과정에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제 품을 망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온도를 맞춰야 하는데, 부인 혼



자서 하다 보니 한 시간에 두 테이블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런데도 먹어 본 사람들이 SNS를 통해 소문을 내준 덕택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수플레가 만들어지는 동안 인내심으로 기다려 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앞에 온 손님들이 많아서 근 한 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드디

을 사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 이거야말로 ‘일석삼조’ 아닌가.

“침에 카페 하겠다니까 아는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구. 이 나이에 뭇하러 사서 고생하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잘했대. 얼마 전에 이시형 박사가 와서 수플레를 먹어 보더니 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감탄하더라구.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돼. 내가 다니는 성당 사람들도 미사 끝나고 꼭 들렀다 가는데 맛있다고들 하니 기분이 좋지.”

영업시간은 10시 반부터 밤 9시까지, 화요일은 쉬는 날이다. 다음 달부터는 하루 더 쉴 계획이다. 힘들기도 하지만, 매달려 있다 보니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이 나이에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하루를 더 쉬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림도 그릴 생각이다.

“이 곳이 도심에서 거리가 멀잖아, 그러다 보니 여차피 겨울에는 여기를 찾는 손님들이 많지 않거든. 이번 겨울을 전후해서 운영 방향을 다시 잡아 볼까 해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로 나와 하나은행 앞에서 701, 7211 버스를 타고 진관사 입구에서 하차하면 한옥마을 초입에 카페 ‘보드레’가 눈에 띈다. 얼굴에서 웃음기가 떠나지 않는 남편과 무심한 듯 음식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에서 소문난 수플레를 꼭 한번 먹어 보시기를 강추한다.

‘사돈네 식구까지 다 모시고 가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에 사무처장의 직책을 겁니다.

어 우리 차례가 왔다. 예쁘게 차려진 수플레에 시럽을 뿌리고 생크림을 얹어 포크로 찢어 먹어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18,000원을 계산하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수플레 말고도 한방차, 생과일 주스 등 몇 가지가 있지만 손님들이 주로 수플레를 찾아서 아예 ‘수플레 잘 만드는 집’으로 상호를 바꿔버릴까 해. 허허허”

듣고 보니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서 ‘그렇게 하시라’고 적극 권했다. 지하실에 내려 가보니 7층 전시회 때 걸었던 작품들이 한쪽 벽에 그냥 놓여 있어서 그 작품들을 ‘이젤에 얹어 카페 밖에 전시해볼 것’도 권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요기도 시키고, 주인장이 화가라는 사실도 알리고, 운 좋으면 작품



## 누구를 위해 ‘초상권’은 울리나?

최근 이른바 ‘조국사태’를 겪으며 ‘피의사실공표’, ‘권언유착’, ‘초상권 침해’ 등 낯익지만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일찌감치 명쾌한 해설을 엮어낸 류종현(보도) 회원의 책 『초상권-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저자에게 사우회보의 길이에 맞게 정리해줄 것을 부탁했고, 흔쾌히 정리해주신 원고를 소개한다.(면집장)



류 종 현(보도)

**공범으로서 언론과 수사기관이 합작한 천박한 ‘초상권 침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수사기관과 언론은 한 통속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피의자 초상과 신상을 공개한다. 그것이 마치 ‘표현의 자유’인양 수사기관은 언론에게, 언론은 시청자들에게 전하면서 밝히지 않아도 될 내용과 주변 인물의 시시콜콜한 신상정보까지 까발린다.

심지어 흉악살인범에게 살인수법과 살인동기까지 인터뷰하여 흉악범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면서 ‘살인영웅 만들기’에 급급한 수치스럽고도 어처구니없는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언론이 합작 보도한 ‘반인권적 비문명적 보도’는 한 두건이 아니었다. 고인이 된 대통령이 고향 사저에 내려가 있을 때,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들부부가 탄 차를 사이렌까지 울리며 뒤따르는 언론 취재차량 행렬이 생중계되자 TV화면을 가리키며 “국민들이 저 구도만 봐도 내 아들이 무슨 큰 죄인인줄 알지 않겠느냐?”며 언론의 취재 행태를 개탄했다.

당시 아들은 공직자도 아니었고 단지 개인자격으로 부모님을 찾아뵈는 것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두하다, 수갑을 찬 자신의 초상이 보도되자 강직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건디지 못해 옥상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탄핵되어 사저로 돌아온 전직 여성 대통령의 사저 앞 건물 옥상에 공영방송사가 지미짚(Jimmy Jib) 카메라를 설치해, 투명한 유리창으로 여성의 안방을 투영하며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불쌍사나운 상황도 목격됐다. 심지어 수의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전직 모 여성장관의 초상하단에 대문짝만한 크기로 “항문검사”운운하는 자막을 넣은 종편

방송도 있었다.

**‘초상권’에 무지한 언론의 위선**

입만 열면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 수사기관과 언론은 정작 행동으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언행불일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사건보도와 대중 집회뉴스 등에서 수사기관과 언론이 손바닥는 가림으로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엉터리 뉴스사례가 바로 ‘집회참가자 숫자 부풀리기’와 ‘초상권 침해’다.

전자는 ‘주최 측 추산’이라는, 그리고 후자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불량포장지로 포장돼 열렁뚱땅 뉴스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곤 했다. ‘주최 측 추산’이란 통계숫자는 부풀려진 거짓말임이 전제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냥 믿어달라는 의미로, 말하자면 ‘드러내놓고 하는 거짓말’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포장지에 싸인 ‘초상권 침해’뉴스는 생각보다 정교하고 절묘한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어서 시청자들은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다.

왜냐면 사건보도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지, 피의자의 초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피의자 초상’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을 권리의 대상’이다.

**우리는 왜 초상권에 더 신경해야 하는가?**

몇 해 전, 섬마을에 부임한 여교사를 그 마을 학부형들이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 여교사는 피해자로서 초상과 신상이 절대 노출되지 말아야 할 대상이었다. 그런데 지방 경찰이 언론 브리핑 중에 실수로 그 섬마을의 이름을 거명했고, 그 결과 그 섬이 어딘지가 알려지고, 섬에 있는 학교가 알려지고, 학교에 부임한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마침내 성폭행의 피해자가 특정되고 말았다.

경찰이 조심했어야 할 점은, 섬 이름은 당연히 밝히지 말았어야 했고, 가해자들의 얼굴도 공개해서 안되는 일이었다. 가해자 얼굴을 공개하면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 섬을 알게 됨으로써 덩달아 학교와 피해 여교사까지 특정하게 되

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과 언론의 과잉친절이 성폭행을 당한 여교사의 혼삿길마저 막아 버림으로써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의자의 초상 공개는 물론, 가해자의 초상공개조차도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일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살인하면 영웅 되는 나라**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모텔 종업원의 토막 살인사건’을 보도한 사례에서 또 다른 보도문제가 발견된다. ‘투숙객이 반말을 했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살인을 했다’라고 카메라 앞에서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고 덧붙이는 흉악범의 뻔뻔하고 당당함에 치가 떨렸다. 그런데 더욱 분통터지는 것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였다.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는 반드시 ‘법과 취재윤리’가 따라야 한다. 여기서 법과 도덕이란 ‘정당성’ 다시 말해 ‘올바른 것’, ‘지당한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범의 살인동기를 인터뷰하고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하는 이 땅의 언론이 과연 제 정신인지를 묻고 싶다. 살인이란 지구상의 어느 국가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륜 흉악범죄다. 이런 저승사자의 살인레버 인터뷰를 매 시간마다 반복해 방송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도인지 언론인들은 성찰해야 한다.

이는 시청자의 시청권에 대한 도전이자 고인과 유족을 능멸하는 행위다. 이런 식의 보도라면, 강간범에게 강간의 추억(?)을 인터뷰해서 그걸 방송해도 좋다는 논리가 된다. 살인범이 그 흉악한 얼굴을 바짝 들고 뻔뻔하고 당당한 어조로 희생자를 능멸하는 언사를 여과 없이 방영하므로써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언론은 이 땅의 ‘또 다른 흉악범죄자’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묻고 싶은 것은, 수사기관과 언론이 흉악살인범에게 언제부터 그토록 관대했고 또 뻔뻔하고 당당한 얼굴로 살인레버를 늘어놓도록 ‘언



론 접근권’을 공공연히 허여해왔었는가?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살인자의 궤변을 듣고 있을 고인의 영혼과 유족의 심정을 헤아려보기라도 했는가?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가 분노한 유족들에게 이른바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 청구소송’이라도 제기당해야 속이 시원했을까?

**맺는 말**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지 ‘피의자의 초상’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를 ‘보고 싶다는 것’은 단지 ‘일부 시청자의 호기심’일 뿐이며, 그런 호기심을 언론이 충족시켜 주기 위해 피의자의 인격권과 인권이 침해되어도 좋다는 논리는 아무도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더더구나 수사기관과 언론이 마치 시청자들과 피해자를 위해서 제 공하는 뉴스 서비스처럼 공개하는 것 중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독화살이 되어 가뜩이나 억울한 사람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소위 ‘초상권 교각살우’를 빚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초상권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른바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에서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으로 언론환경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거듭되는 이야기로, 언론의 사명은 제4부로서 입법 사법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균형 잡힌 민주적 권리구조를 견고히 하여 모든 국민에게 그런 권익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인터뷰

## 요양원에서 인생을 생각한다



장두호(관리)

장두호(관리) 회원은 1977년 본사 입사, 안전관리부에서 1985년까지 근무하다가 1986년부터는 대전 MBC로 옮겨서 기술연구소와 영상제작에서 10년 더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2007년 평택에 장애인복지시설인 '평강의 집'을 등록해 운영하는 동시에 충남 목천에서 '목천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 목천요양원에는 현재 몇 분이 계시나요?

24실실에 스물일곱 분이 계십니다. 94세부터 82세까지 대부분 치매가 있는 분들이죠. 요양원이란 곳이 공단으로부터 1~4등급의 요양등급을 판정 받아야 올 수 있는 곳이라서(물론 사립요양원은 다르구요) 중증 노인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요양원 정원은 27명이지만 공간을 좀 더 편안하게 쓰시라고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 직원과 요양보호사 합해서 17명이구요.

## 요양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MBC에 근무할 때부터 평택에 있는 장애인 미혼모(성폭력을 당해 임신한 지적장애인) 두 사람에게 매달 얼마씩 지원했었어요. 1997년에 MBC를 그만 두고 한번 찾아갔더니 운영이 어려워져서 시설이 문을 닫게 됐더라구요.

당시 운영하던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운영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권유하는 바람에 생각치도 않게 운영을 떠맡게 됐어요. 평택 "평강의 집"인데 현재 11명의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아내가 운영합니다. 복지 쪽 일을 하

면서 저도 나이 먹다보니 자연 노인 문제에 관심이 갔구요, 그래서 7년째 "목천요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 시설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죠?

그렇죠. 제가 신학대학교 3년 재학 중에 MBC에 입사했었는데 나중에 강남대 사회복지학과로 편입을 해서 마쳤어요. 그 후에도 인터넷강의를 통해 2년간 공부를 더 하고 나서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성폭력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안전관리사 등 자격증이 아홉 개나 있습니다. 전에 한국심성교육개발원 평택지부장을 하면서는 후학들도 많이 배출했었죠.

## 우리가 모르는 요양원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뭔가요?

애로사항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경제적으로는, 지원금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점이구요.(돈 벌려면 차라리 건물 세 받아먹는 게 낫지 이거 못해요) 거의 매일 한두 분씩은 꼭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차를 대기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노인들 일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니까요.

개인 부담금이 월 50만원 정도 되는데 천만원까지 밀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이 있지만 잘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요.



목천요양원

다. 갖출 것 다 갖춰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해야 하고, 시설 개량 계속해야 하고 등등.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화재가 나서 사상자가 나기도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식사도 여가서 만들지 않고 시에서 감독하는 지정 식당으로부터 삼시 세끼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간식을 잘 챙겨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늙으면 군것질이 늘거든요.

또 저희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주일 단위로 다양하게 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놀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오락시간도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 노인들의 건강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퇴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칠순, 팔순, 구순 생일을 다 챙겨드리다 보니 매월 케익을 한두

개씩은 꼭 삽니다. **방간에는 병든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겨놓고 모른척하는 자녀들도 많은 얘기가 있던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런 자녀들 더러 있습니다. 부모님을 입원시키고 한 달쯤은 잘 와요. 아들보다는 딸이 더 자주 옵니다. 그 후에는 발을 끊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 버리는 분도 있어요. 주소지를 찾아가 보면 이사해버린 사람도 있구요. 대개 노인들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목에 가래가 끓습니다. 그런 경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가래 처치만 해주면 좀 더 사실 수 있는데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걸 반대하는 보호자도 있어요.

**돌아가시게 그냥 두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은 가버려요. 그런 날은 저와 직원들이 24시간 곁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요. 혼수상태로 12일 동안**



평택시 평강의 집

있다가 가신 분도 있었어요.

##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럼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디라도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랬다가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하죠. 하루에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의 유족들은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지만, 더러 고인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유족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경우도 있고,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있구요. 보호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저희가 장례까지 치르고 장지에도 가죠.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죠. 그래서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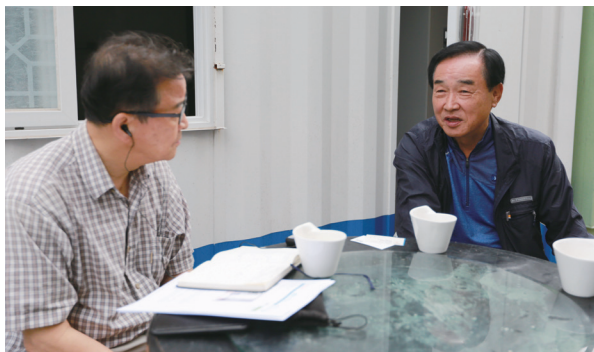
## 그렇군요. 요양원 운영하면서 느끼시는 것도 많겠어요?

많죠. 켈 큰 게 허무감과 우울증입니다. 죽는 사람들을 늘상 보니까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하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저 자신 내년이면 딱 찬 70이니까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게, 불행하지 않게 죽을 것인가 그게 관심사죠. 저는 일찌감치(2010년) 시신기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후 대비는 벌써 끝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 줄 것도 없으니 우리 내외 사는 날까지 노인들 돌보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볍고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습니다.

사우회원님들은 어떤 생각들 갖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다 내려놓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래요 허허허.

〈대담, 정리: 편집장〉



목천요양원에서 인터뷰

## 목천요양원이 요양병원과 다른 점은 뭔가요?

사립 요양원(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저희들은 시청과 공단, 소방서 기타 관청들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대중~이라는 게 없습니



## 축복



김명은

어느새  
나뭇잎을 모두  
떨구었다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겨울나무들이 서 있다

나도  
무거운 마음 불편한 마음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

봄날처럼 따스한  
바람 한 점 없는 산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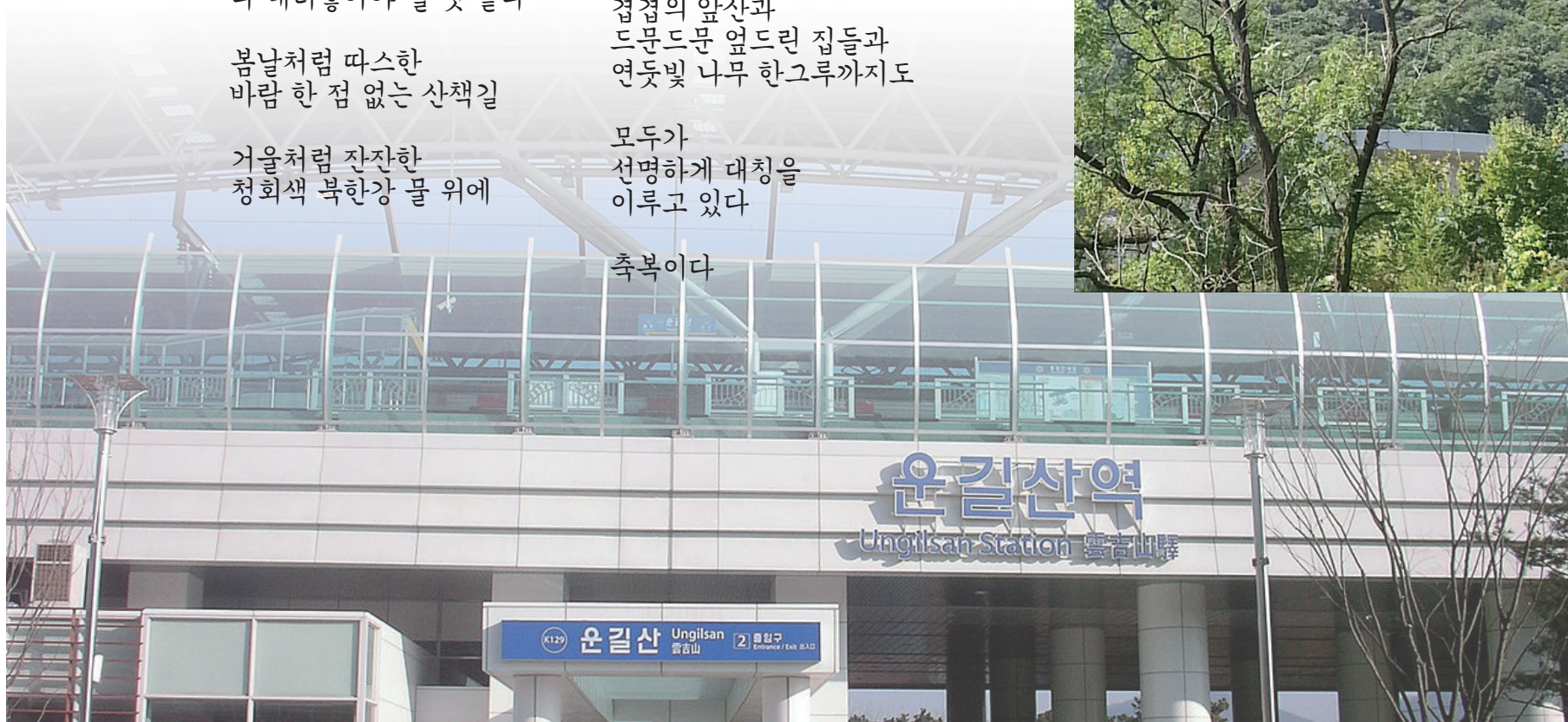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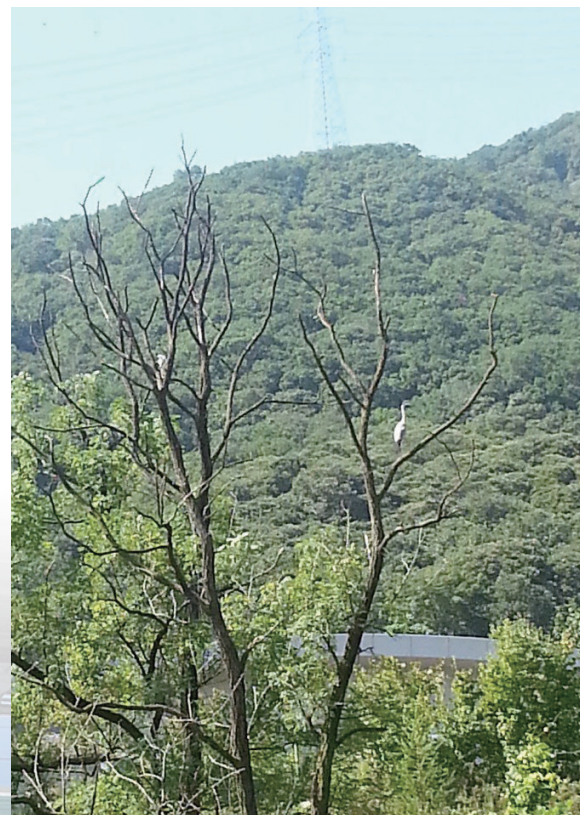
거울처럼 잔잔한  
청회색 북한강 물 위에

녹슨 철교도  
운길산 역 하얀 지붕도

점점의 앞산과  
드문드문 엮드린 집들과  
연둣빛 나무 한그루까지도

모두가  
선명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축복이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을 닮고 싶었다.  
풍경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강물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은 과연 따스한지...

겨울나무는 의연하다. 다 내려놓고서 오히려 성숙되어가는 힘살.  
한쪽 어깨를 새들에게 내어준다.

기나긴 서울생활을 접고 이곳 양수리로 내려 온지도 어언 2년.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었다.  
그 보답으로 나는 시를 쓴다.

오십여 년 전 남편의 MBC 입사시험 합격을 어찌 잊겠는가.  
근무하던 영업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로 통합되는 바람에 MBC는 8, 9년  
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우리가족은 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평생 살아온 것 같다. 축복이다.(김명은)

※ 김명은 시인은 황귀철(업무, 문광회 회장) 회원의 부인으로 2007년 첫 번째  
시집 '방 하나 부엌 하나'를 발표했고, 올해 두 번째 시집 '고니가 왔어요'를 발표  
했다. 풍광 좋고 공기가 상쾌한 양수리에 살면서 한결같이 따뜻하고 정감있는 시  
를 쓰는 전업주부 겸 작가다.(편집장)



NEW 갓 담은 김치부터 묵은지까지 맞춤보관

# 김치냉장고 대전

삼성 김치플러스 BESPOKE

LG DIOS 김치톡톡

위니아딤채

## 전자랜드